

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 <□□□>□

인천아트플랫폼
입주예술가 창작지원 전시

작품 없는 전시, 작품을 위한 전시

[제 1 회] 아트플랫폼 입주예술가 창작지원 전시

김혜원

박승순

서영주

정혜정

F동 사람들

2017. 6. 2 - 7. 9



세 가지 제보

1. 장소

- ① 무대처럼 느껴지는 곳
- ② 난관에 봉착해 있는 곳
- ③ 특별한 활동이 있어 있는 곳
- ④ 주민들이 모여 있는 곳, 환경적이 자주 있는 곳

2. 사람

- ① 대표, 관장님, 도박사, 주민 등

3. 대화

- ① "가시리스 카페" 내 일상 대화

* 관람객은 전시 기간, 사전 등록 없이도 관람 가능합니다.

* 관람객 사전 등록을 위해 왔습니다. 전시 기간에 사용될 사진을 관람객에게 공개합니다.



세 가지 제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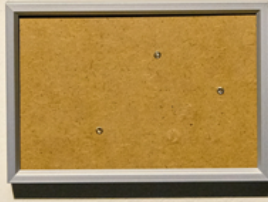
1. 장소 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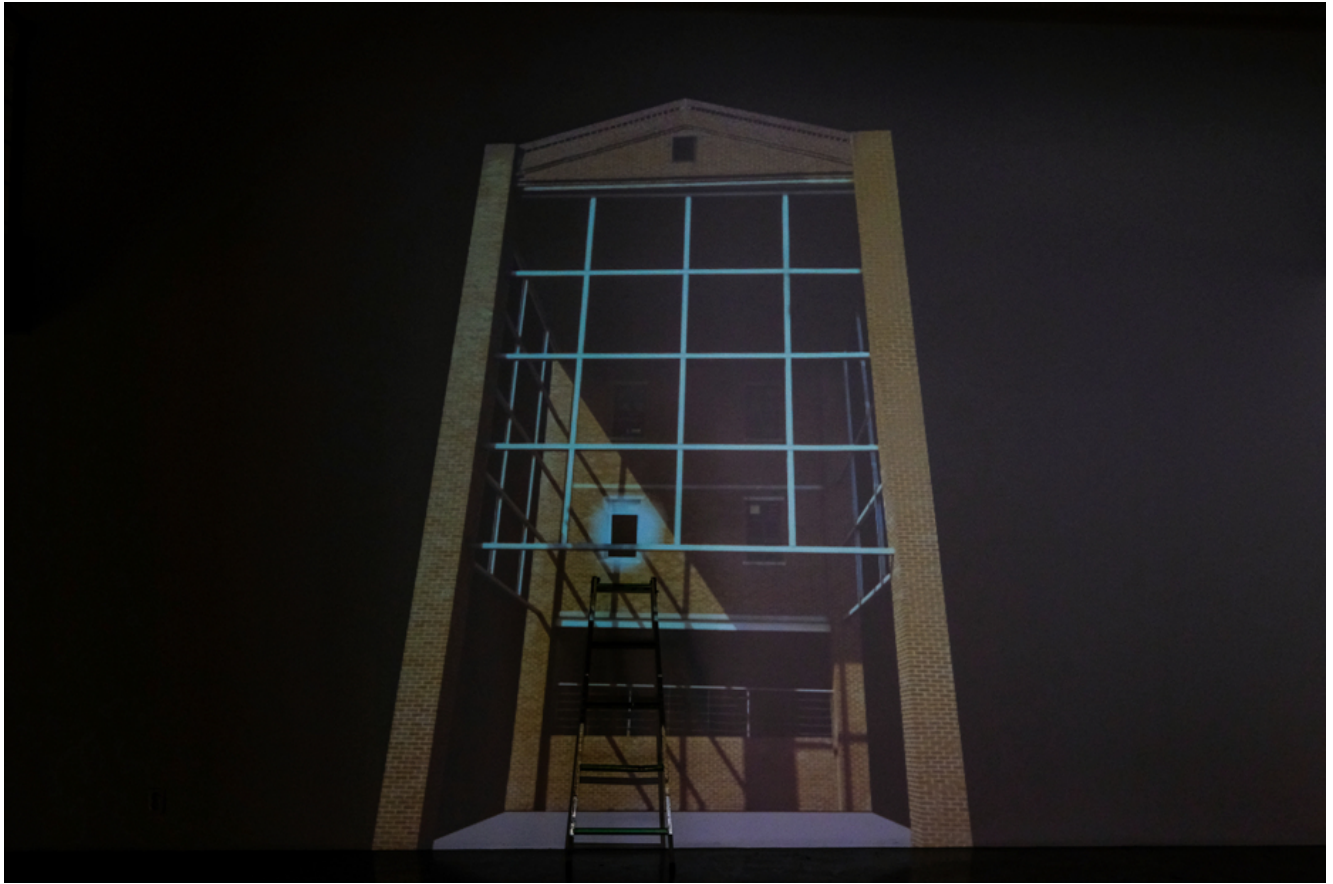
- ① 무대처럼 느껴지는 곳
- ② 나에게 의미 있는 곳
- ③ 독특한 형태 · 색이 있는 곳.
- ④ 주민들이 모여 있는 곳, 관광객이 자주 앉는 곳

2. 사람 ... 화교, 관광객, 토박이, 주민 등

3. 대화 ... '오아시스 카페' 내 일상 대화

* 관람객은 엽서 작성, 사진 출력 등으로 제보한다.
* 출력된 사진은 테이블 위에 놓는다. 작가는 작업에 사용할 사진을 선택하여 액자에 넣는다.









<https://goo.gl/gXEeof>

1. 위의 링크에 접속하고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.
2. 듣기 10 / 인식 10, 총 20개의 문항이 제시되며 각 5점씩 배점된다.
3. 듣기평가 : 재생되는 소리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 1개를 선택한다.
4. 인식평가 : 컴퓨터가 추론한 이미지에서 가장 연관성이 낮은 키워드 1개를 선택한다.
5. 만점을 획득한 참가자의 경우 최종 총점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작가에게 발송하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. phonicspark@gmail.com



* 전시 기간 중, 이곳을 방문하지 않는 이들도 참여할 수 있다. 위의 링크를 촬영하여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린다.



오아시스 카페

서영주

지친 우리, 모두가 쉼을 원한다.
내 영혼의 목마름,
그곳에서의 참 쉼. 그곳에서의 시 한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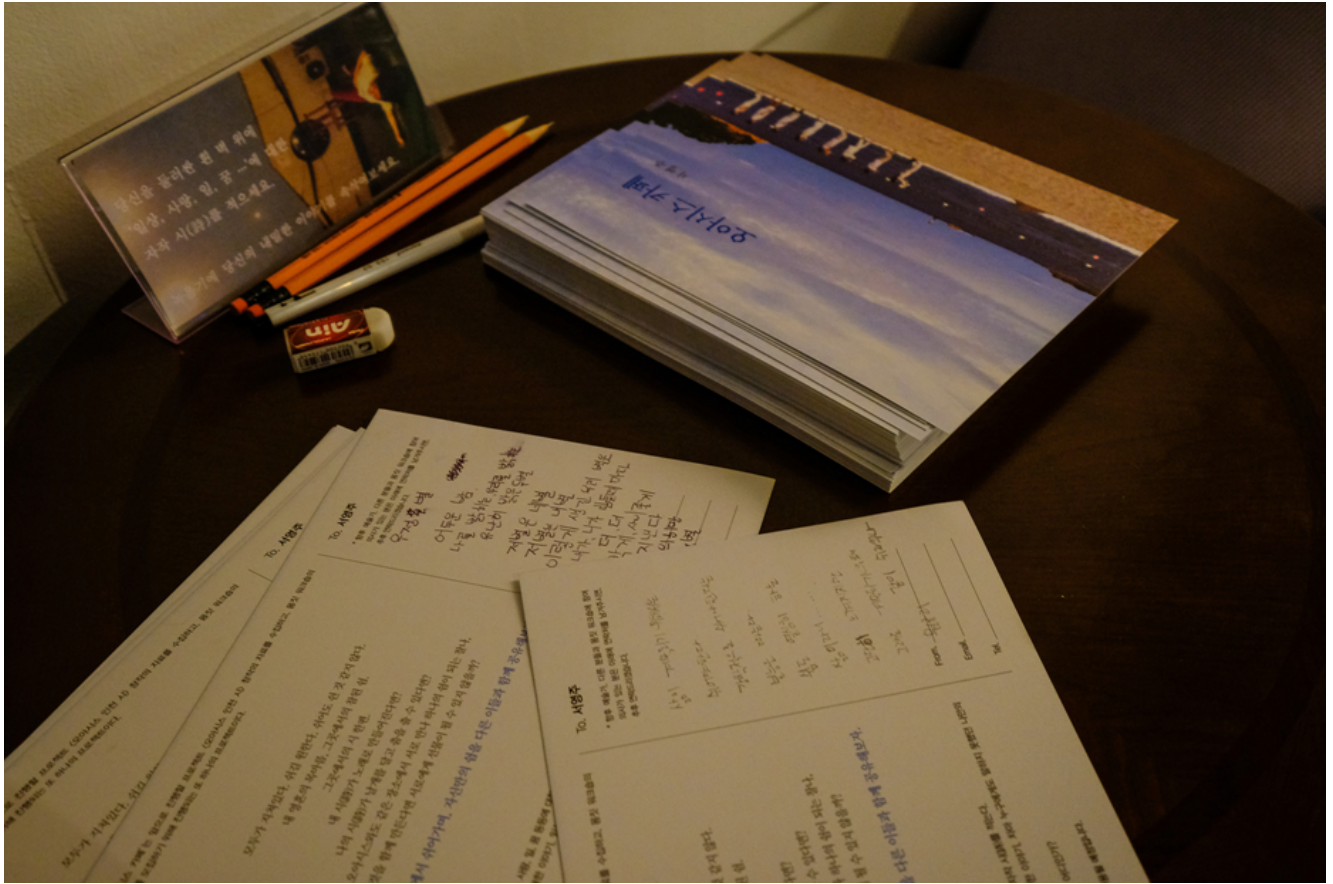
나에게 오아시스와도 같은 곳은 어디인가?
쉬수 있는, 쉬고 싶은, 쉼에 대한 이야기.

*오아시스 카페에서 잠시나마 쉬어가면,
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길 바란다.
이제껏 많은 '몸짓 워크숍(몸으로 말하는 놀이)'의
그림으로 활동한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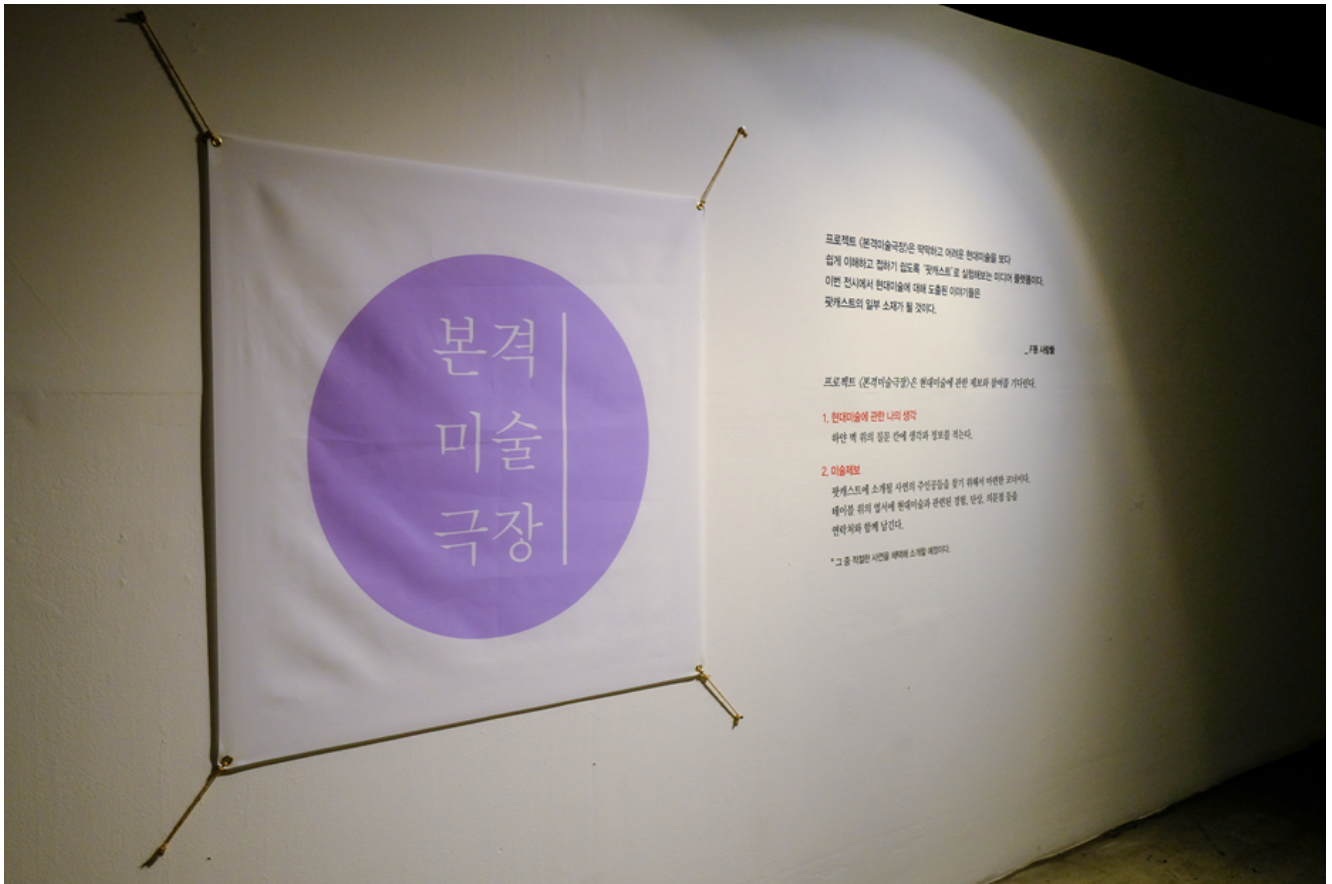
3. 몸짓 워크숍 참여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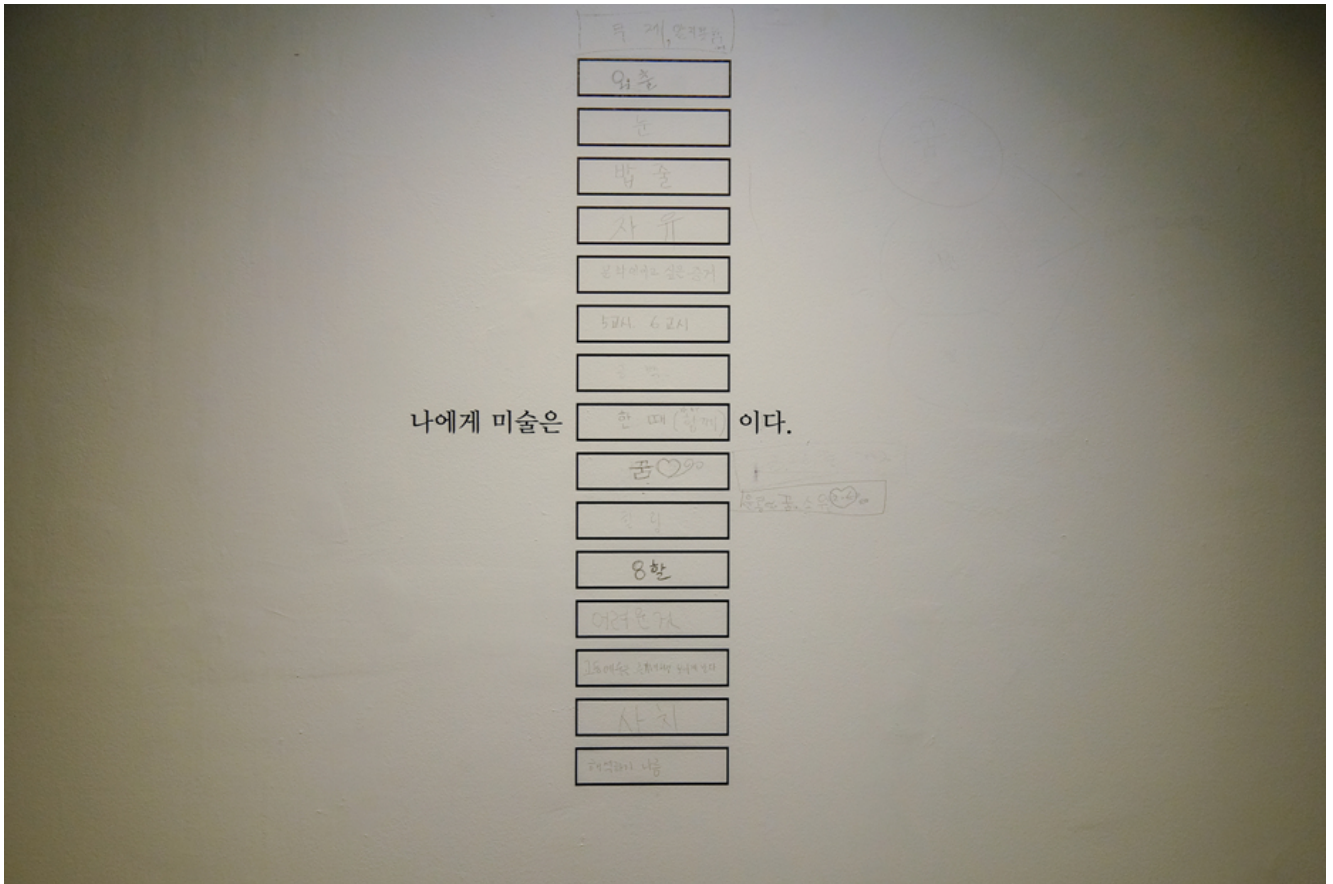
반짝이는 시와 이야기를 소재로 향후에
여러분이 참여하는 몸짓 워크숍(몸으로 말하는 놀이)을 진행할 예정이다.
참여를 원한다면 옆서에 연락처를 적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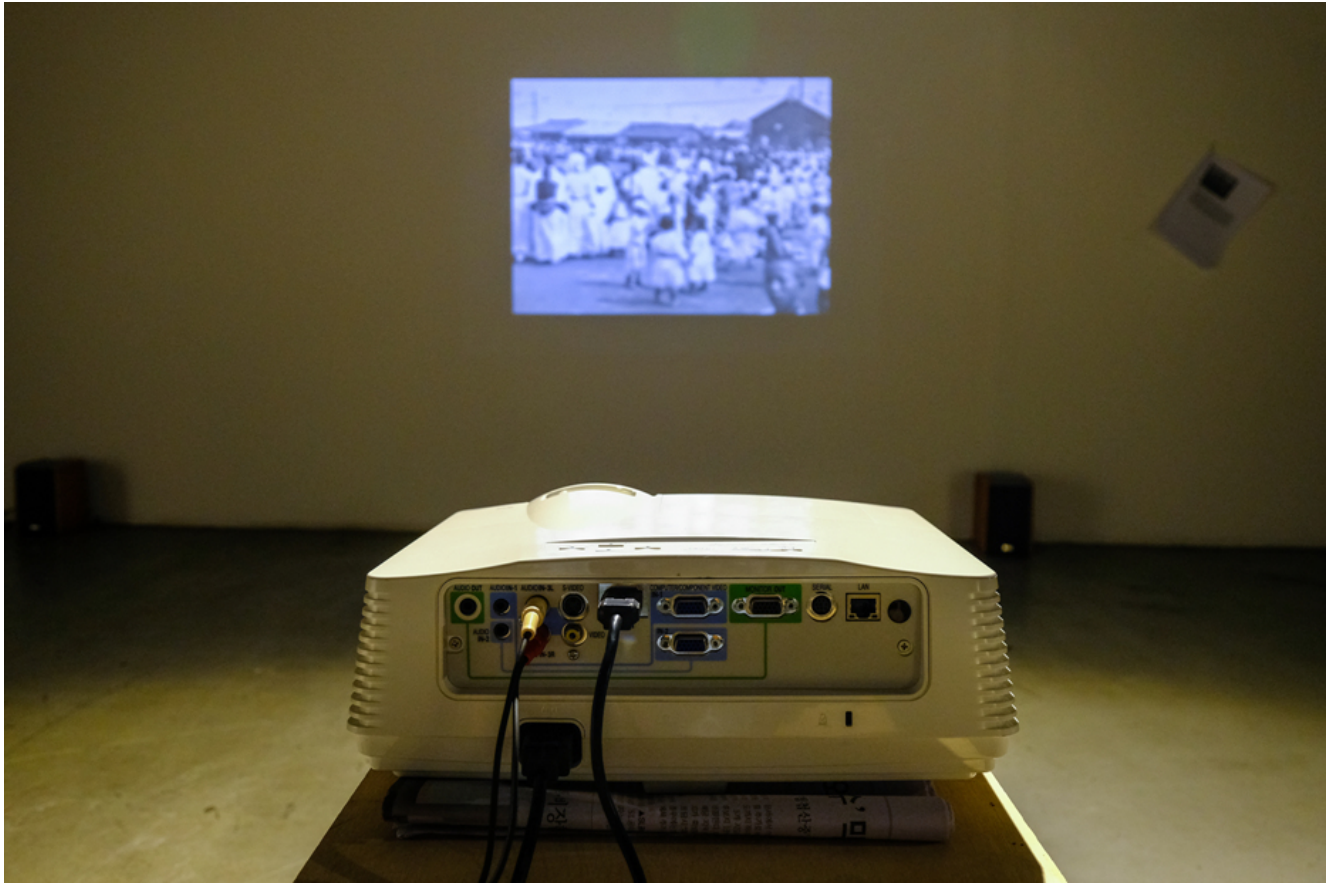
*독백과 대화는 '오아시스 인천 시' (서영주)와 '바깥의 바깥' (정혜정) 작업에
활용될 수 있고, 전시장에서 재생될 수도 있다.
이에 동의하시면 편히 머물다 가시길 바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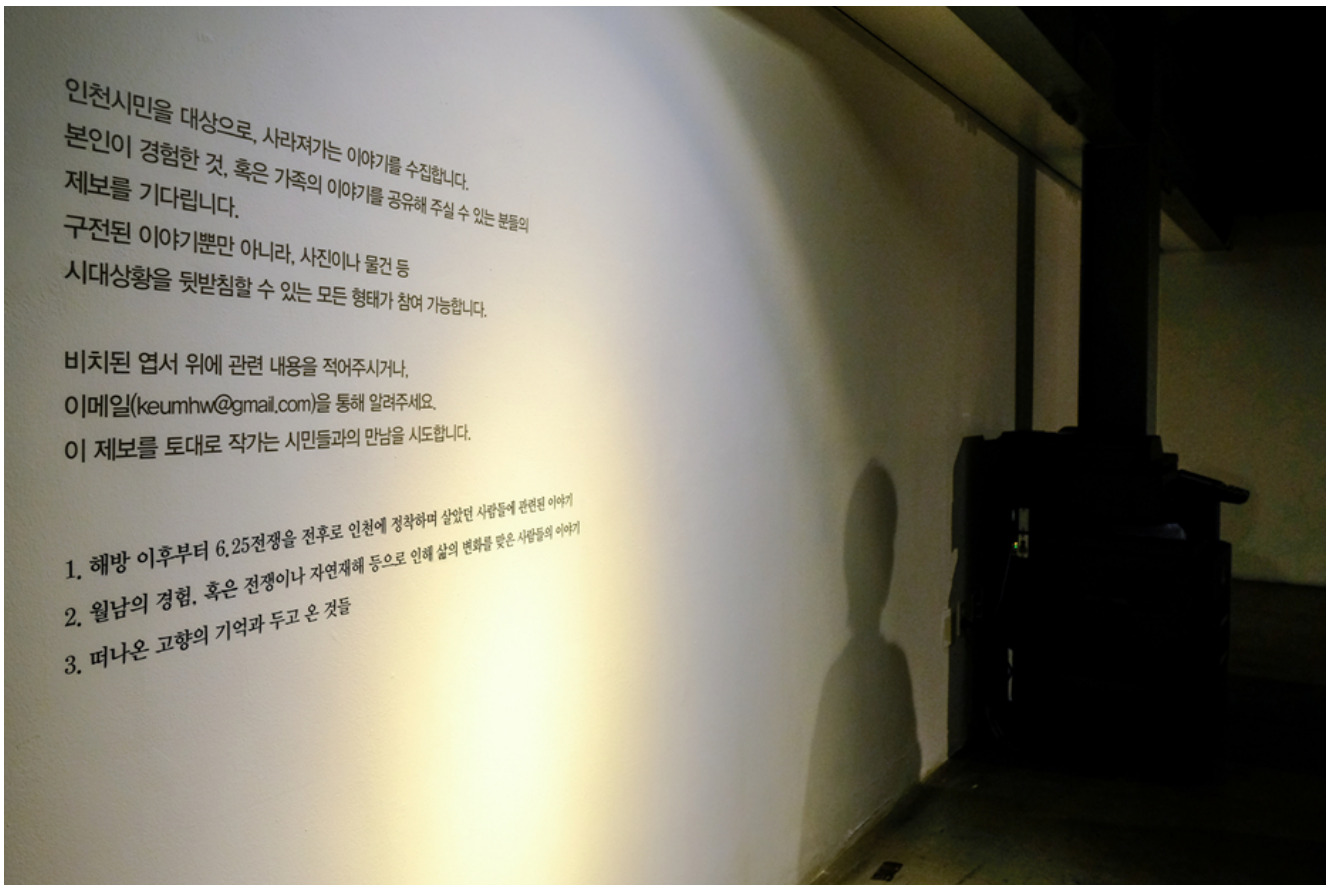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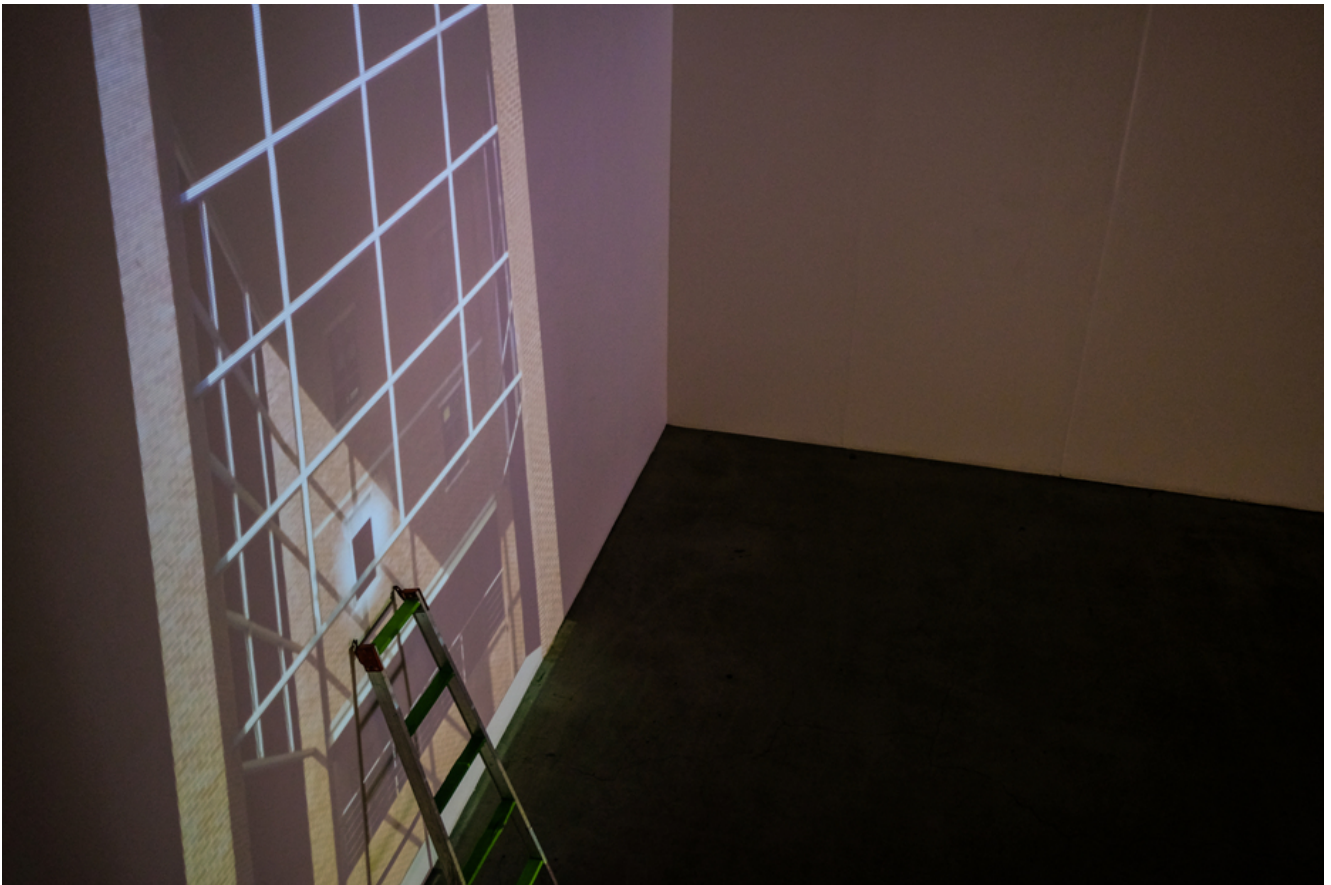
















* 000 000 000 00 00 0 0000.

000/ 2017.06.02~2017.07.09

00/ B 000

00/ 000000 3.0 0000 000